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경기 침체로 보이지 않는다
- Bloomberg: 미 무역적자 7백31억불로 줄어... 수출 상승 탓

[미국 금융]

- WSJ: 증시 매도로 연준 9월 0.5% 금리 인하 가능성
- Bloomberg: 6조 4천억불 매도로 트레이더들 '대침체' 두려움

[미 대선]

- Bloomberg: 해리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 메이트로

[미국 생활]

- CNN Business: 작아지는 미 신규 주택, 첫 구입자에 자에게 유리한 변화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서비스 중심의 소비 진작 정책 추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우버, 지난 분기 수익성 회복하며 주가 상승
- Bloomberg: 인터컨티넨탈 CEO "미 호텔 수요, 경제 우려에도 끄떡없어"
- WSJ: 세계 경제의 두 축, 미국과 중국의 소비 위축
- CNBC: 약국 체인 월그린스, 매장 폐쇄 결정한 이유는?

[경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8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This Doesn't Look Like Recession. Here's How One Could Happen. 미 경제, 경기 침체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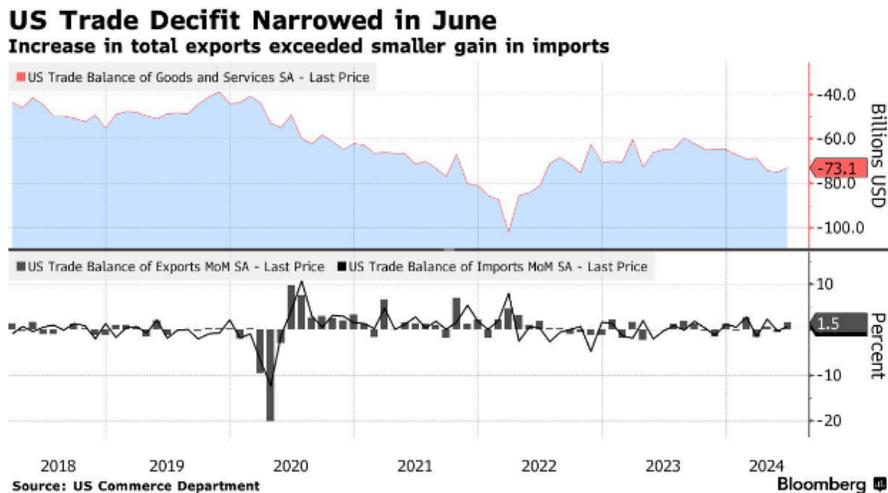
-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단기 이자율 밑으로 하락한 상태다. 이는 모두 침체를 보이는 신호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제 침체 리스크가 상승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아직 늦지 않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연준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리고 투자자, 소비자, 고용주들의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에 달려 있다.

-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침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주식 시장의 매도세인데 이는 미국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고 통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일본은행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 두 번째 사건은 실업률이 4.1%에서 7월에 4.3%로 상승했다. 경기 침체는 일련의 과정인데 고금리나 신용 경색에 따른 타이트한 금융 여건이나 높은 오일가에 따른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와 고용, 수입의 지속적인 약세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WSJ 기사

Bloomberg: US Trade Deficit Narrows to \$73.1 Billion as Exports Pick Up
미 무역적자 7백31억불로 줄어... 수출 상승 탕

-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올해 초 이래가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6월 미 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적자는 6월과 비교해 2.5% 줄어든 7백31억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의 당초 예상치는 7백25억달러였다.
- 수준 규모는 1.5% 상승했으나 수입은 0.6% 하락에 머물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Market Selloff Upends Fed Rate-Cut Calculus
증시 매도로 연준 9월 0.5% 금리 인하 가능성

- 어제 월요일 증시 매도세는 침체 리스크와 금융 시장 악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주 회의에서 연준은 다음 달에 0.25% 금리 인하의 기반을 마련했

는데 더 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정도로 향후 몇 주 동안 전망은 더 어두워 보인다.

- 연준 관리들은 다음 달 17일부터의 양일간 회의 전까지는 만나지 않는다. 만약 7월 고용 보고서가 우려스러운 추세라면 연준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시도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 0.5%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6.4 Trillion Stock Wipeout Has Traders Fearing 'Great Unwind' Is Just Starting

6조 4천억불 매도로 트레이더들 '대침체' 두려움

- 월요일 매도 현상은 시장 베테랑에게도 충격이었다.
- 일본 니케이는 12%하락했고, 코스피도 9% 떨어졌다. 나스닥도 순식간에 6% 하락했으며 암호화폐도 급락했다. 증시의 공포지수인 VIX는 급등했다.
- 투자자들은 부랴부랴 안전 자산인 국채로 몰렸다. 이같은 매도세가 글로벌 매도의 마무리인지 계속되는 슬럼프의 시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행히 화요일에 니케이는 10% 반등하고 있으며 미 주식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그동안 투자자들이 믿고 있었던 기동들, 즉 미국 경제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인공지능은 모든 비즈니스를 혁명화 할 것이고 일본은 고금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동들이 흔들리고 있다.
-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미 일자리 보고서도 약하고, 빅 테크의 분기 실적도 그렇고, 일본은행은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렸다.
- 시장의 패닉은 크고 작은 리스크를 일으킨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매도 현상을 방지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기어가 고장나고 대출을 둔화시켜 글로벌 경제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용시장 유동성 관련해 이같이 금융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준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회의 스케줄 사이에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속화 시키는 등 연준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는 점이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Bloomberg: Harris Picks Minnesota Governor Walz for Ticket, CNN Says 해리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 메이트로

-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막기 위해 해안 및 중서부 선거인단의 협력 구축 차원에서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Tim Walz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했다.
-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해리스는 인구학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노선을 뛰어 넘는 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Walz는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네소타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그의 업무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 유권자들의 91%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주별로는 3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New homes are getting smaller. That could be big news for first-time bu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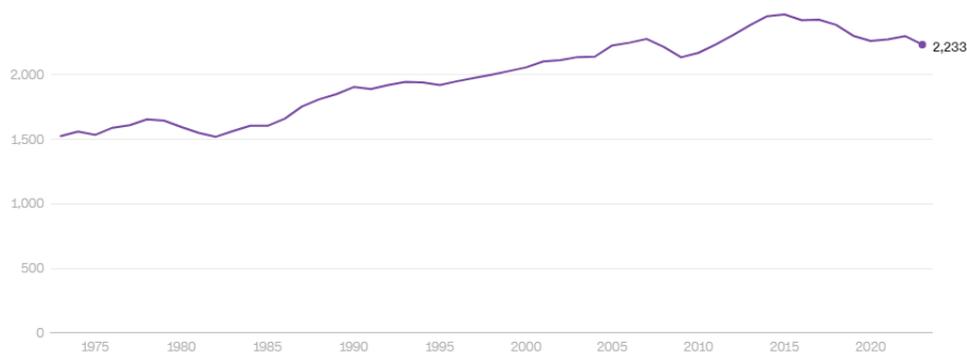
작아지는 미 신규 주택, 첫 구입자에 자에게 유리한 변화

- 미국의 신규 단독 주택 크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1973년에 완공된 주택의 평균 크기는 1,525제곱피트였지만 2015년에는 2,467제곱피트로 크게 늘어났다.
-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구매 비용의 상승과 대형 주택인 ‘맥맨션’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더 작은 주택을 건설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지어진 단독 주택의 평균 크기는 2,233 제곱피트로, 2015년에 비해 9% 감소했다.
- 주택 구매자들도 더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미 주택 건설업협회의 4월 조사에 따르면, 전형적인 주택 구매자는 2,067제곱피트 크기의 주택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신축 주택의 평균 크기보다 작은 수치이다.
- 이에 따라 주택 건설 업체들은 더 작은 부지에 주택을 짓거나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최대 주택 건설업체인 D.R.호튼은 주택 크기를 줄여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7월 실적 발표에서 마이클 머레이 최고운영책임자는 D.R.호튼의 평균 주택 크기가 작년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New homes are getting smaller

The size of new homes peaked at 2,467 square feet in 2015.

Median square feet of floor area in new single-family houses completed



Source: US Census Bureau
Graphic: Samantha Delouya, CNN

CNN Business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 Steps Up Policy Focus on Services in Consumption Pu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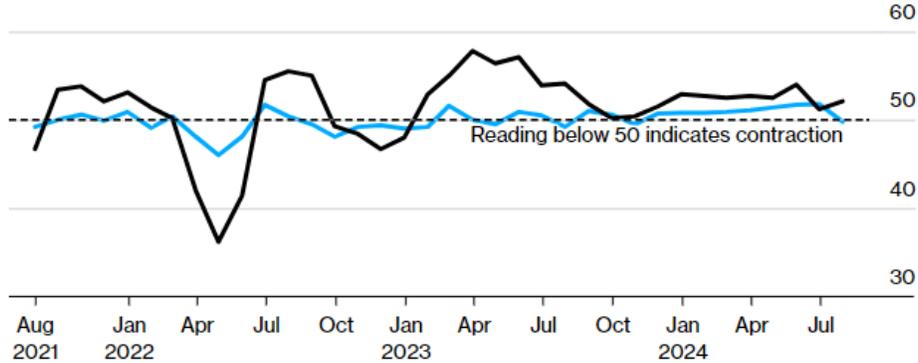
중국, 서비스 중심의 소비 진작 정책 추진

- 중국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 국무원은 토요일에 식당, 관광, 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0개 항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는 차이신(Caixin)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 팬데믹 이후 중국의 소비자 지출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6월 소매 판매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과 불확실한 소득 전망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망설이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China Services Expansion Picks Up in July

Private purchasing managers' indexes show a mixed start to the third quarter

Caixin Services Caixin Manufacturing



Source: Bloomberg, Caixin and S&P Global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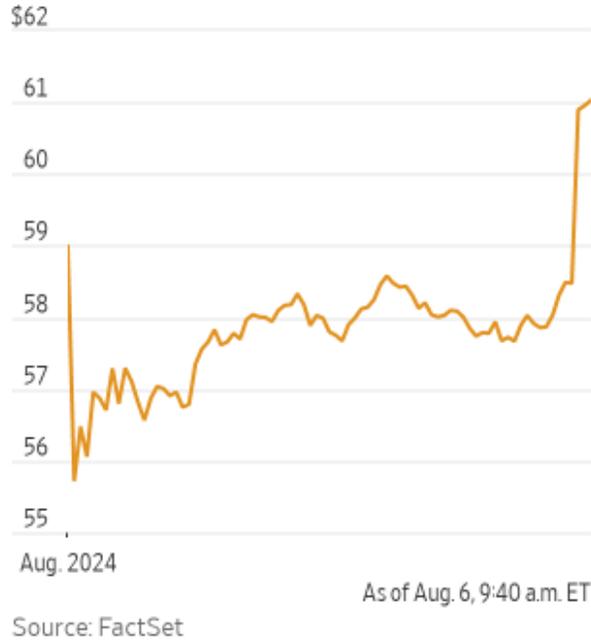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Uber Returns to Profitability on Continued Demand for Rides and Delivery

우버, 지난 분기 수익성 회복하며 주가 상승

- 우버는 지난 분기에 승차 공유와 음식 배달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을 회복했다고 발표한 후 화요일 주가가 상승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수요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이다.
- 우버는 6월까지의 3개월 동안 10억2천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분 투자 이익과 운영 수익이 반영된 결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우버의 주가는 개장 직후 5% 가까이 상승했다.
- 우버는 그동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팬데믹 기간에는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화물 및 배송 사업에서도 소폭의 감원을 단행했다.
-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우버의 독립 계약자 모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했고, 메사추세츠 주 법무장관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일부 혜택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Uber Technologies



WSJ 기사

Bloomberg: InterContinental CEO Says US Hotel Demand Defies Economy Fears

인터컨티넨탈 CEO “미 호텔 수요, 경제 우려에도 끄떡없어”

-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CEO 엘리 말루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호텔 수요가 경기 침체의 징후를 보이지 않으며 여름 성수기가 7월과 8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GDP와 중상층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요 성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 말루프는 호텔 요금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함께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가격 인상 여지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WSJ: Burgers, Botox and Birkins: Consumer Pullback Hits China and U.S.

세계 경제의 두 축, 미국과 중국의 소비 위축

- 일부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는 주택 시장의 붕괴, 임금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 만약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이미 몇 분기 동안 중국의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은 기업들이 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며 매출 둔화를 경고하고,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Ernst & You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전 세계 소비자 지출의 상당 부분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매출 성장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Why pharmacy chains like Walgreens and CVS are shuttering locations

약국 체인 월그린스, 매장 폐쇄 결정한 이유는?

- 6월 말,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3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8,600개 매장 중 "상당수"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인 팀 웨트루스는 매장의 75%만이 이익을 내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2027년까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결정은 CVS의 올해 말까지의 폐업 계획과 10월 Rite Aid의 파산 신청에 이은 약국 소매 공간의 또 다른 약화 신호였다.
- 월그린스는 소비자 환경 악화와 약국 이윤에 대한 압박과 같은 거시적 이슈를 폐쇄의 이유로 언급했지만, 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 월그린스의 소매 부문, 즉 매장 앞쪽은 최근 몇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의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샌더스는 "일반 상품과 미용 제품이 있는 매장 앞쪽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유 브랜드가 매력적이지 않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월그린스는 소매 부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장 뒤편의 약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 부문도 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그린스 전체 매출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약국 매출은 약국 혜택 관리자 (PBM)의 역할이 커지면서 보상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CNBC 기사

[경제 보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4.8월)



경제 보고서 원문

글로벌 증시, 최근 3주간 8천760조 원 증발...대침체 시작?

장기침체 공포 확산했지만 '미국 경제 견조' 분석 많아

5일(현지시간) 전세계 증권시장에서 일제히 투매가 발생하는 등 최근 3주간 글로벌 증시에서 모두 6조4천억 달러(약 8천760조 원)가 사라졌다.

투자자들은 특히 이번 대폭락이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표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시장 내부의 문제인 만큼 패닉(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